

01 교회소식

“믿음과 소망이 커졌어요!”

전국 만민 꿈나무들의 천국 잔치,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올해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러졌다.

02 생명의 말씀

성결을 이루려면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해 불같이 기도하며, 주님과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신속히 성결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

04 간증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들의 만성 피부질환을 치료받은 프랑스 어거스틴 보보 성도와 주님 사랑을 알아가니 행복하다는 이재영 권찰 간증.

만민뉴스

제645호 2014년 8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으로 생방송 된 여름성경학교, 행복해요! 만민아동예술제 대상(대전), 금상(무안), 은상(서울), 동상(서울), 인기상(밀양)



첫째 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개강예배'①, 둘째 날 이수진 목사의 '말씀과 기도'②, 셋째 날 이희선 목사의 '파워저져스'③, 넷째 날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성령충만기도회'④와 학년별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된 올해 아동주일학교(교장 김현진 전도사, 뒷줄 맨 오른쪽) 여름성경학교는 세계를 향해 나갈 만민 꿈나무들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었다.

“2014년 여름성경학교”가 GCN 방송으로 국내외에 생방송 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주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30일(수)까지 4일간 ‘온 영’을 주제로 열렸다.

개강예배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통역됐으며, 주교사연화회장인 류순엽 권사의 사회로 총부장 천재식 장로의 대표기도, 흰돌성가대의 특송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온 영’(히 10:22)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닮은 선과 사랑, 진리로 가득한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세상의 말과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

대로 행치 말아야 한다.”고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했다.

둘째 날인 7월 28일 오전에는 이수진 목사를 감사로 ‘말씀과 기도’ 시간이 진행됐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질병을 치료받은 어린이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이를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후 찬양과 기도를 통해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인 7월 29일 오전에는 ‘제7회 만민 아동예술제’가 한유빈, 유지혜 자매의 사회로 열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으

로 독창, 중창, 워십, 판소리, 고전무용, 연주, 타악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기량을 선보였다. 대상은 트윅클 율동팀(대전), 금상은 김주는 자매(무안), 은상은 마하나임팀(서울), 동상은 러블리 워십팀(서울), 인기상은 이은혜 자매(밀양)가 수상했다.

오후에는 이희선 목사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파워저져스’가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했다.

넷째 날인 7월 30일 오전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감사로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이뤄 영광 돌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 밖에 찬양과 율동, 구연동화, 성경퀴즈, 성령충만기도회, 비전특강, 요리대회 등 학년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각 반 주교사의 인도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공과 시간이 있었다.

아동주일학교(교장 김현진 전도사) 지도교사와 부장, 주교사와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 속에 어린이들은 온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신앙의 기분을 다지는 축복을 받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5)

성결을 이루려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결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며 변화하려는 노력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자칫 하면 지식적인 믿음에 그치고 오히려 불순종이나 판단 정죄 등 죄를 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고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더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상대의 단점을 떠올리고 불편해하거나 은근히 그의 단점을 말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왜 열심히 해도 저 사람보다 못한가.’ 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칭찬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나는 어떠한가?’ 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가? 남이 나보다 잘되는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의 마음이 비취집니다. ‘내가 며칠 전 이러저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구나, 낙심했구나, 시기 질투했구나.’ 이런 기억이 떠올러지고 깨달아져야 자기 안에서 발견한 비진리를 버리며 마음에 사랑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성결은 더디 이뤄지며 영적인 믿음과도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조명했다 해서 성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이런 비진리가 있구나.’라는 깨달음만 가지고도 충만함과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시 예전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발견한 순간에는 충만해 비진리를 버린 것 같지만 아직 마음에서 그 비진리의 속성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만 받고 있다면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기에 비진리가 발견되면 그날로 기도해 신속히 빼내 버려야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은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불같은 기도이지요.

유창하게 멋있는 말로 기도한다 해서 혹은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해서 불같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해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오래한 일꾼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행복과 기쁨도 없이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마 6:33).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깨달은 것과 이뤄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우렁차면서도 맑은 소리가 납니다. 옆사람이 들을 때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무슨 말로 기도할까.’ 생각 속에 짜내지 않아도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그 삶 가운데 변화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기도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충고는 무시합니다. 또한 “은유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는

금세 짜증을 냅니다. 이런 기도는 성결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자신의 기도가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성결을 사모하는 기도인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향인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만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우리는 참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곧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목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불쫓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양 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빛 가운데 산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를 때야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 등 맹수가 나타나거나 위험한 곳에 이를 때는 즉시 신호를 받아 피할 수 있고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목자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주시하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지요.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과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영혼들의 구원과 성결, 축복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목자와 하나 되어 목자의 마음과 뜻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신속하게 성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복음으로 항상 자신을 조명하며 불같은 기도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목자와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상급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성결이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하지요. 즉 주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 사함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할례해 성결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결을 이뤄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마땅히 이뤄야 할 사명이며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마음을 할례하며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1.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해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한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믿음에 가깝지만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착각

◆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에 가까운 믿음의 단계가 되면 겉으로 볼 때 특별히 지적할 만한 악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비진리를 행하지도,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게 불순종하거나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늘 기도하고 나름대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영을 사모해 달려가기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직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많다. 자신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불순종도 있고 '자기 보기에 선'도 있다.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옳은 것처럼 보이기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육체의 결여

◆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다. 아직 분야 분야 남아 있는 육체의 결여로 인해 영으로 들어가는 데 지장을 받기도 한다.

육체의 결여는 마치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서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문을 '광광' 닫거나, 방문을 발로 밀어서 닫고, 식사할 때도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먹거나 흘린다.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거칠게 걷거나 단체 생활을 할 때에도 어지르기만 하고 물건을 쓴 후에는 아무 데나 두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교양만 제대로 갖

춰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더 깊은 차원의 육체의 결여도 많다. 가령,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거나 말을 중간에서 끊는 것,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은 '자기 위주'로 살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육체의 결여는 마음이나 행함의 결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생각이나 사고의 결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갖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 또 주변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실족시킬 수도 있다.

교만

◆ 교만에는 육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이 있다. 육적인 교만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만이냐'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버릴 텐데 자신의 교만이 보이지 않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칫 교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리에 비추어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혹여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더 세세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례

1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경우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기가 강하다보니, 자신을 굽히며 낮춰서 상대를 사랑하며 섬기는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기의 성격적인 틀도 나오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도 나오게 된다.

자기를 발견해 변화되려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가 강할 때에는 이것이 잘 안 된다. 영적인 사랑을 채우는 만큼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처럼 타고난 중심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도 중요하다.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를 만들어 온 사람은 주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적인 것'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려면 오랜 세월 자신을 만들어 온 것과는 반대로 심어나가야 한다.

열심히 자기를 낮추고 섬김으로 심으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채워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영적인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이나 입장, 그리고 아픔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도 시기, 질투라는 근본의 악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얼굴 표정에까지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의 근본에 깊이 숨겨진 시기, 질투의 악을 발견해 철저히 뽑아버려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중심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보다 더 행복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이뤄 더 선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2 '자기적인 것'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려줄 수

3 '시기·질투'로 인한 경우

시기, 질투라는 것은 꼭 상대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으로도 나올 수 있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들렘이나

4 '육적인 정과 자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경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육적인 정과 욕심은 반드시 버려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사랑을 해야 참 행복이 온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8 2014 August
08.03~08.0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26-30
- 에언 3
- 요한계시록 강해 23
- 공의
- 창세기 강해 4-6
- 사랑장 11-13
- 일곱교회 3-6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9 (이수진 목사)
- 선을 달아기는 방법 (이미영 목사)
- 같은 상황, 다른 마음 2 (이미영 목사)
- 생명수 7/옴기 강해 1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9 (이희선 목사)
- MIS강의 14 (정구영 목사)
- 육체의 결여 2 (김승신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4
- 옛날 옛적에 2
- 모두 드려요 12
- 흥겨운 소리 5
- English 13
- 만민저킴이 7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8
- 찬양 드려요 1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0
- 황기 14
- 뷰티풀 라이프 5
- 플로리스트 4

해외성회 및 교육

- 독일 연합대성회 1
- 회상 13
- 2013 기관장 교육 3-4
- 만민하게 수련회 (생방송)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한국 방문은 우리 가족의 응답과 축복의 길이였습니다”

어거스틴 보보 성도 (프랑스 파리, 60세)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기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했고, 성경 말씀도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갖고자 기도해도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갈급함만 더해갔지요. 결국 개신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12년 직장 동료인 자넷 듀브레를 통해 한국의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뒤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등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들을 읽으며 저는 신앙의 본질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필(가운데)의 15년 된 피부병을 치료받아 행복해하는 남편 에밀 보보와 어거스틴 보보 성도

처음에는 피부에 반점들이 몸의 일부에만 생겼는데, 성장하면서 몸 전체로 퍼져 심할 때에는 음식을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잠을 잘 수도, 공부할 수도 없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알레르기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결론을 내렸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코르티손(호르몬의 일종)을 투여해 고통을 줄일 뿐이었지요. 이것도 장기 투여하면 피부와 뼈에 매우 해로워지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사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은 ‘믿음’에 대해 설교해 주셨고, 말씀에 은혜받은 아들은 ‘믿음으로 치료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에는 곧바로 약을 끊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얼굴과 몸 전체에 염증이 일어나 화끈거린다며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설교 내용을 기억하며 마음을 붙잡고 이겨냈지요. 한 주 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15년 동안 상처의 반복으로 생긴 두꺼운 딱지들이 저절로 떨어졌고, 피부가 점차 재생돼 갔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가족은 지난 6월 말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직접 기도를 받았지요. 또한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이 담긴 물에 일곱 번 침수한 후에는 신기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샤워 후 반드시 크림을 발라 주어야만 했는데 피부가 미끈해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이처럼 아들의 병은 크게 호전됐고,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의 질병은 가족 모두의 고통이었는데,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행운이 됐지요. 참 행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7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후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